

○ **외환리포트**

전일동향	전 거래일대비 11.40원 상승한 1,228.70원에 마감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6일 달러-원 환율은 코로나19발 경기지표 악화를 반영하며 전 거래일 대비 11.40원 상승한 1,228.70원에 마감하였다.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-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,224.90원에 개장하였다. 개장 직후 환율은 미국의 소매매출 감소(전 월대비 -8.7%)를 반영하며 큰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. 그러나 1,230원에서 당국경계에 상단이 제한되었으며, 이후 증시변동에 따라 1,220원 후반의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한 후 1,228.7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. 시장 평균환율은 1,227.50원에 고시되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-원 재정환율은 1,139.90원 이다.

전일 달러 변동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
	1224.90	1229.10	1224.90	1228.70	1227.50

전일 엔화 변동	시가	고가	저가	종가
	1135.25	1146.41	1134.77	1142.10

금일 전망	美 경제활동 재개 희망 속 치료제 소식... 1,220원 초반 중심 등락 예상
--------------	---

금일 달러원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시카고대학에서 개발중인 치료제 ‘렘데시비르’가 임상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을 반영하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4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228.70원) 대비 0.20원 상승한 1,227.5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.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재개방침을 밝혔다. 그는 경제재개를 3단계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각 주의 주지사가 필요에 따라 재개여부를 판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. 한편, 시카고 대학에서 개발중인 코로나19 치료제 ‘렘데시비르’가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나왔으며 이로인해 미국의 선물지수가 3%가까이 상승했다. 이상의 치료제 임상효과는 경제재개와 함께 환율에 하락압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 다만, 배당지급에 따른 외국인 역송금 증가는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며, 11시경 발표될 중국의 1분기 GDP에 따라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.

금일 달러/원	1222.00 ~ 1230.50 원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예상 범위	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5687.48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.20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23537.68, +33.33p(+0.14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73.47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-1513 억원

주의사항

※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.

※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